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e-Health Literacy)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오정석(한국체육대학교 조교) · 노형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Jeong-Seok Oh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Hyoung-Kuy Roh*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건강정보에 대한 온라인 활용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부모연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지 및 온라인 설문지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한 결과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253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처리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 요인 중 부모의 높은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dentified e-Health Literacy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onfirmed the effect on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s in sports for all. Subjects were 300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gistered as members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lfare center and the Organization for Parents of the Disabled established in Seoul, and as a result of collecting data in parallel with offline and online questionnaires, a total of 253 people except for unfaithful answ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ents' e-Health Literacy on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s in sports for all. First, it was found that e-Health Literacy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d an effect on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s in sports for all. Second, it was found that critical e-Health Literacy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d an effect on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s in sports for all. Third,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ve e-Health Literacy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dn't affect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s in sports for all. In other words, the higher e-Health Literacy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higher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s in sports for all, and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critical e-Health Literacy of parents, the higher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s in sports for all.

Key words : e-Health literacy, sports for all, developmental disabilities,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ies, parents

* 이 논문은 제1저자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요약하고 수정·보완 작성한 것임.

** rhk0019@knsu.ac.kr

1. 서론

오늘날 장애인 체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김민창 & 한민규 & 김원경, 2016) 장애인 생활체육은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활을 도모하는 등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김권일 & 김인애, 2019). 최근 장애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체육활동 요구가 커지고 있다(노형규 & 이동철, 2013).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신체기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인지적·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준중, 오아라, 구교만, 서건우, 김경진, 김재화, 윤석민, 2022; 박재성, 윤석민, 이현수, 2009; 이재욱 & 최영준, 2016). 하지만 이러한 생활체육의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오준택 & 조가람, 2022). 2020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를 살펴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24.2%)은 비장애인의 참여율(60.1%)보다 낮게 나타난다(이성모 & 진주연,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1). 그 원인 중 주요한 요소는 정보격차이다.

김민창 & 홍석만(2022)은 정보습득의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정보습득의 경험이 없는 장애인에 비해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관련 정보습득의 경험이 있는 장애인(24.3%)이 정보습득의 경험이 없는 장애인(75.7%)보다 생활체육 참여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그리고 주요 정보습득 경로에서 비장애인은 대중매체(34%), 지인(32%), 인터넷(16%) 등 여러 수단으로 정보를 습득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인은 TV/라디오인 대중매체가 주요한 정보 습득 경로로써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70%)을 차지했다. 즉, 혼자 운동하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의 만날 기회가 낮고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미혜 & 김권일, 2019).

이러한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에서 정보 제공 향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홍보 사업의 강화로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미혜 & 김권일(2019)은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개선된다면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중매체, 지인 및 기관 등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나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기에(백민호, 2017) 향후에는 주요 정보습득 경로로써 온라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기대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 및 예약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어(김병준, 이기표, 윤용진, 2021), 정보격차 문제에 놓인 장애인은 낮은 수준의 온라인 정보 활용능력으로 운동 참여에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의 급성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과 활용능력 수준에 따라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이승민 & 남영희,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에 따르면 정보 역량, 정보 활용, 정보 접근의 개념을 포함

한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로 할 때에 비해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81%에 머물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특히 인터넷 활용능력이 취약한 사람은 정보격차 속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은 그 정보격차라는 문제를 경험하는 대표집단 중 하나이다(박경미, 2018).

발달장애인은 인지발달의 지체로 인해 또래보다 더 적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유동철, 2018) 인터넷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정확히 찾아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이승민 & 남영희, 2018).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며(장혜림 & 김성천, 2015),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여 제공한다(김민진, 2014). 즉, 정보중개자로서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강유민 & 조영식, 2016).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인 자녀는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따라 생활체육의 참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건강정보 활용능력(Health Literacy)'은 Simonds(1974)가 미국 건강교육과 관련하여 사용한 최초의 개념으로(Ratzan, 2001),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도구와 합쳐진 개념이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e-Health Literacy)'이다. 즉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e-Health Literacy)'은 인터넷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인지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남영희 & 정인숙, 2020),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습득한 건강정보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구교만 & 김준중, 2017). 따라서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 능력은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획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이는 발달장애인에게도 강조된다.

건강정보 활용능력과 연관된 연구들은 운동 영역을 포함한 건강증진 행동과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정정희, 2014)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건강증진 행위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규명하기도 했다(이성심, 손현정, 이동숙, 강현욱, 2017; 김현정 & 김미영, 2020; 노미영, 2021; 이승민 & 남영희, 2018; 황아름, 2019). 또한 어머니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건강증진 행위가 정적인 관계의 결과를 나타냈다(유미애, 백은비, 강나경, 2021).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주된 대상은 비장애인이었다. 건강에 대한 정보 활용능력이 낮은 경우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고(엄사랑, 윤희정, 김혜리, 김연선, 2021), 건강에 대한 정보활용 수준이 비교적 낮은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구교만 & 김준중, 2017).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 및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생활체육 참여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건강정보와 운동 참여에 대한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에 따라 발달장애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발달장애인 부모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1-2. 발달장애인 부모의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1-3. 발달장애인 부모의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인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비판적, 의사소통적, 기능적)과 종속변인인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의 영향에 대해서만 연구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한 영향은 연구가설과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둘째,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정보접근보다 온라인 정보 접근에 초점을 맞춘 주제이기 때문에 온라인에만 국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 표집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발달장애인 관련기관, 장애인 부모연대 등 서울시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전체 발달장애를 대변하거나 발달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 장애자녀의 부모에 대한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과 생활체육 참여도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넷째, 부모 자신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대한 수준이 타자인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거주지는 서울이며,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 및 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으로 추출하였다. 먼저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설문조사 가능여부에 대해 협조를 구한 후 코로나(COVID-19)로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병행하여 총 300명에게 설문지와 URL주소를 배부하였으며, 내용 중복 및 누락, 불성실한 답변이라 판단된 47부를 제외한 25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구대상(부모)에 대한 일반적 특성이다.

표 1. 연구 대상자(부모) 일반적 특성 (n=253)

특성	구분	사례수(%)
성별	남	22(8.7)
	여	231(91.3)
연령	30대	9(3.6)
	40대	98(38.8)
	50대	120(47.4)
	60대	26(10.4)
	생산직	4(1.6)
학력	서비스직	38(15)
	사무직	27(10.7)
	관리직	7(2.8)
	자영업	9(3.6)
	전문직	31(12.3)
	영업직	6(2.4)
	주부/가사	118(46.6)
	무직	4(1.6)
	기타	9(3.6)
	직종	초졸
중졸		2(0.8)
고졸		79(31.2)
대졸(전문대 포함)		145(57.3)
대학원 졸업 이상		24(9.5)
기타		2(0.8)

다음 <표 2>는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이다.

표 2. 발달장애 자녀의 일반적 특성 (n=253)

특성	구분	사례수(%)
성별	남	181(71.5)
	여	72(28.5)
연령	3~9세	16(6.4)
	10대	115(45.4)
	20대	102(40.3)
	30대	18(7.1)
	40대	2(0.8)
장애유형	지적장애	122(48.2)
	자폐성장애	110(43.5)
	중복장애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다른 장애)	21(8.3)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대한 조사도구로 이상록(2018)이 개발하고 황아름(2019), 김현정(2019) 연구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 주제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로서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해당하는 문항 11문항,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해당하는 문항 12문항,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묻는 문항 8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대한 조사도구는 최귀정, 이현수(2018)의 생활체육 참여도 문항을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추가 수정·보완한 타우치 아이(2018)의 설문지를 토대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조사도구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구성 내용

구분	구성내용
부모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12)	온라인을 통해 찾은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함
	온라인을 통해 발견한 건강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가능한지 선별함
	온라인을 통해 특정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함
	온라인을 통하여 얻은 건강 행동의 적절함을 판단함
	온라인을 통하여 진료 예약 시 제공되는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함
	온라인을 통하여 약을 먹거나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판단함
	온라인을 통해 얻은 의료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함
	자신과 비슷한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제공한 정보의 적합성을 선별함
	온라인을 통하여 믿음직한 정보를 찾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온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도움되는 정보를 구분함
	온라인에서 얻은 건강정보를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활용함
	내 건강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활용함
부모의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11)	온라인을 사용하여 나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타인과 이야기함
	온라인으로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함
	건강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를 발견하면 온라인으로 타인과 공유함
	온라인을 통해 타인과 건강정보에 관해 대화하는 방법을 알
	온라인을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함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타인과 이야기함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를 공유함
	특정한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질문함
	온라인에서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 의견을 교환함
	온라인에서 건강과 관련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함
건강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의 "지식 in" 또는 "건강 Q&A"에서 질문하고 답을 구함	

부모의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8)	온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건강정보를 찾음
	온라인에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건강정보를 찾음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음
	온라인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 정보를 찾음
	온라인에서 이해 가능한 의료정보를 찾음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 (5)	온라인에서 질병의 증상 및 치료법을 찾기 쉬움
	필요한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함
	새로운 건강정보에 대해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함
	생활체육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함
	생활체육 경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좋아함
	좋아하는 스포츠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함
생활체육 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함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함	

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의 설문지 타당도 검증을 위한 특수체육 전공교수 1인, 박사과정 2인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용어를 <표 4>과 같이 수정 및 통일하였다.

표 4. 설문지 문항 수정

기존 설문 용어	수정된 설문 용어
e헬스 리터러시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비판적 e헬스 리터러시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의사소통적 e헬스 리터러시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기능적 e헬스 리터러시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Cronbach's $\alpha = .88$,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Cronbach's $\alpha = .90$,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으며, 생활체육 참여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완성된 설문지 자료를 수집한 후 불성실한 답변, 이중기입, 오타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들은 분석에서 제외한 후 유효한 자료들만을 사용하여 Excel 365 프로그램에 부호화(coding)하였다. 부호화된 자료들은 SPSS 24.0 Version. 통계프로그램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따라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03$, $p<.01$), 발달장애인 부모의 높은 수준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여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TOL	VIF
	B	SE				
상수	2,119	.353		6,001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011	.003	.203	3,290**	1,000	1,000
		$R^2=0.41$		$F=10.821^{**}$		

* $p<.05$, ** $p<.01$, *** $p<.001$

2. 발달장애인 부모의 기능적, 비판적,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의 기능적·비판적·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따라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각각의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의 하위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으로 회귀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김민진, 2014)를 보이는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는 .704 ~ 1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 ~ 1.420으로 10보다 낮아 모든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수준에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로는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제외한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으로 투입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투입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둘째, 하위변인인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277$, $p=.023$).

즉, 발달장애인 부모가 온라인상에서 얻은 건강정보를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른 하위변인인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온라인 내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 정도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종속변수인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제외된 변수로써 <표 6>의 결과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능력이 있더라도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중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6. 발달장애인 부모의 기능적, 비판적,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TOL	VIF
	B	SE				
상수	2,093	.364		5,750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277	.121	.169	2,294*	.704	1,420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061	.087	.052	.700	.704	1,420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1,246	.547	1,828
		$R^2=0.41$		$F=5.325^{**}$		

* $p<.05$, ** $p<.01$, ***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통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의 중요성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1% 수준에서 유의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높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염두승(2021)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또한 남영희, 이승민(2018)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 능력, 건강관심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가 달라지며, 박동진, 권명순, 최정화(2013)에 따라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높은 욕구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성이 높아지고(류현주, 2019), 자녀를 위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 및 신뢰도가 높다는 것으로 사료된다(임우령, 2014). 또한 김현정 & 김미영(2020)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평가방법, 이용방법 및 정보의 양질을 판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혹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각종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둘째,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따라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성희, 2003)를 뒷받침하며 나아가 어머니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건강증진행위가 높았다는 유미애 등(202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고학력일수록 곧 부모 개인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얻은 건강 관련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정보를 분석하고 적용시키는 인지적 능력에 따라 자녀가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은 대졸이상인 66.8%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정보에 대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분석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대상자들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은 기존 선행연구(황아름 & 강현욱, 2019; 염두승, 2021)와는 다르게 3.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자녀를 위하여 온라인 건강정보를 얻을 때 정보의 유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득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인지적 능력이 잠재적으로 트레이닝 됐을 것이라 사료된다(조옥희 & 황경혜 & 김미나, 2021). 또한 온라인상의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사람은 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정보 추구행위가 높아 자녀의 건강행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음(유미애 등, 2021) 무분별하게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일

상생활에 적용하는데 확신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병관, 변용준, 임주리(2010)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며,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의사소통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인오, 박숙경, 김은경(2015)의 연구결과와도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한 정보공유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적인 관심사는 아니기에(타우치 아이, 2018) 해당 정보들까지 부족한 상태(구교만 & 김춘중, 2017)라고 사료된다. 결국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얻더라도 지인들에게만 안내하는 현상과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에 따르면 PC의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C 이용 능력과 모바일기기의 이용 능력을 통해 낮은 정보 활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건강정보의 낮은 신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조옥희 등, 2021), 높은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 실제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 영향에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자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의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 자녀의 상황에 맞게 분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확한 건강정보를 찾고 그에 걸맞은 정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과 개인의 임파워먼트*(이상록, 2018; 최귀정 & 이현수, 2018)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 개인이 갖춰야할 정당한 권리를 위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능력

나타났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여 읽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상록, 2018; 이병관 등, 2010). 그러므로 온라인상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키워드를 공유하는 ‘캐치 프레이즈(catchphrase)’ 방식을 적용시킨 장애인 생활체육 종합 정보망(김미혜 & 김권일, 2019)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통해 검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 “발달장애인 부모의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높아질 것이다” 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1-2 “발달장애인 부모의 의사소통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도 높을 것이다” 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마지막 가설 1-3 “발달장애인 부모의 기능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도 높을 것이다” 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최종적으로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비판적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관한 후속연구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은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도 증진할 수 있기에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다양한 인터넷 활용능력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 보호자인 부모의 정보 활용능력과 정보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과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대한 관계성을 검증하였으나,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수준이 타자인 자녀의 생활체육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에 따른 요인을 추가로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의 하위변인(비판적, 기능적, 의사소통적)에 대한 양적인 의미보다 발달장애인 운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질적으로

연구하여 부모들이 온라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능력과 관련된 변인만 연구하였지만, 향후에는 정보접근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영역의 활용능력(Literacy)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 코로나19(COVID-19)의 상황으로 인해 시 단위 분석단위로 연구가 진행되어 전 지역의 동질성에 관한 한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로 시군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2020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강유민, 조영식(2016). 어머니의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이 유아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16(1), 26-36.
- 구교만, 김춘중(2017). 척수장애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운동참여의 관련성.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70), 537-546.
- 김권일, 김인애(2019). 생애주기 및 장애정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7(3), 127-142.
- 김미혜, 김권일(2019).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비교 분석을 통한 운동 비참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7(1), 61-72.
- 김민진(2014).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복지서비스 정보접근성이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민창, 한민규, 김원경(2016). 지적장애스포츠 조직의 변천 및 발전 방향. **스포츠 사이언스**, 33(2), 37-48.
- 김민창, 홍석민(2022). 장애인의 운동 참여가 건강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61(5), 55-66.
- 김병준, 이기표, 윤용진(2021). 인터넷 리터러시를 적용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따른 운동참여의도 분석: 인터넷 예약시스템 경험 노인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0(3), 13-28.
- 김성희(2003).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와 어머니의 건강신념과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춘중, 오아라, 구교만, 서건우, 김경진, 김재화, 윤석민(2022).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제약요인과 극복을 위한 지원 요소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2), 47-56.
- 김현정(2019). **암환자와 간호사의 e-헬스리터러시와 건강증진행위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 김미영(2020). 암 환자와 간호사의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

- 증진행위 비교 연구. **대학중앙간호학회지**, 20(2), 100-109.
- 남영희, 이승민(2018). 보건계열과 공학계열 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행위 비교.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1947-1955.
- 남영희, 정인숙(2020).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e-헬스리터러시, 건강정보 신뢰도 및 건강행위가 건강정보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지**, 21(3), 213-520.
- 노미영(2021). 전문대학 여대생의 e-헬스 리터러시가 운동 자기-도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5(1), 85-97.
- 노형규, 이동철(2013). 장애학생 체육활동에 대한 부모의 신체활동 가치 인식. **스포츠 사이언스**, 30(2), 63-70.
- 류현주(2019).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eHealth literacy)가 건강행위와의 관련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인오, 박숙경, 김은경(2015). 간호 대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동이 건강증진행위실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2), 231-243.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보고서.
- 박경미(2018). 중·고령 장애인의 인터넷 정보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박동진, 권명순, 최정화(2013). 개인의 건강정보지향,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수준과 건강관련 행위의 관계. **홍보학연구**, 17(3), 379-413.
- 박재성, 윤석민, 이현수(2009). 움직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 및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899-909.
- 백민호(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쇄문화산업혁신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엄사랑, 윤희정, 김혜리, 김영선(2021). 중·고령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디지털 격차와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4(1), 127-152.
- 염두승(2021). 온라인 여가스포츠 참여 여성들의 e-헬스 리터러시가 웰빙추구성향 및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9(3), 307-316.
- 오준택, 조가람(2022). 성인 자폐성 장애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현상학적 인식 탐색.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1), 67-83.
- 유동철(2018).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2판. 서울, 학지사.
- 유미애, 백은비, 강나경 (2021). 어머니의 인터넷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지향과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2), 221-229.
- 이병관, 변용준, 임주리 (2010). 개인의 e-헬스 리터러시(e-Health Literacy)가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3), 89-125.
- 이상록 (2018). e헬스 리터러시 척도 개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성모, 진주연 (2020).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생활체육의 개념과 정의 재정립의 필요성.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8(3), 25-35.
- 이성심, 손현정, 이동숙, 강현욱 (2017). e-헬스 리터러시,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 추구행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55-67.
- 이승민, 남영희 (2018). 보건학전공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9(2), 77-86.
- 이재욱, 최영준(2016). 특수체육프로그램이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사이언스**, 34(1), 101-109.
- 임우령 (2014). 개인별 e-헬스 리터러시가 온라인 의료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장혜림, 김성천 (2015).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용능력과 정보만족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학회**, 27(2), 1-26.
- 정정희 (2014).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관련 위험인식과 건강행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조옥희, 황경혜, 김미나 (2021).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영향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9(4), 403-411.
- 최귀정, 이현수 (2018).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과 임파워먼트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72), 387-398.
- 타우치 아이 (2018). 성인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황아름 (2019).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황아름, 강현욱 (2019).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韓國學校保健學會誌**, 32(3), 165-174.
- Ratzan, S.C. (2001). Health Literacy: communication for the public good.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6(2), 207-214.
- Simonds, S. K. (1974). Health education as social policy. *Health Education Monographs*, 1(1_suppl), 1-10.